

옛 도청 주변·송암산단·사직공원 일대

문화산업투자지구 지정 '잰걸음'

광주시, 업체 2~3곳과 입주 협의...稅감면 조례 개정나서

광주시가 옛 전남도청 주변과 사직 공원 일대, 송암산업단지 등을 대상으로 문화산업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본격 착수했다.

투자진흥지구 내 입주 기업에 대해 지방세 감면 조례 개정에 나서는 한편 외지 문화 관련 업체 2~3곳과 구체적인 입주 협의도 벌이고 있다.

광주시는 22일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위해 지방세 감면을 골자로 하는 '투자진흥지구 투자기업 지원을 위한 시세감면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될 시세감면조례는 투자진흥지구에 투자하는 기업은 법인세, 소득세 5년 간 감면(3년 간 100%, 이후 2년 간 50%),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15년간 재산세 면제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광주시는 또 지난 12일 투자진흥지구 수요자인 기업체 관계자가 포함된 테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문화로 밥먹고 사는 데들이진 문화공동체"로 조성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착수했다.

광주시는 시세감면조례 개정안을 법안심사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9월 제191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시세감면조례와 구세감면조례가 개정되면 투자진흥지구에 투자하는 기업은 법인세, 소득세 5년 간 감면(3년 간 100%, 이후 2년 간 50%),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15년간 재산세 면제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광주시는 또 지난 12일 투자진흥지구 수요자인 기업체 관계자가 포함된 테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문화로 밥먹고 사는 데들이진 문화공동체"로 들어오면 지역 내 문화 관련 시설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한석기자 chadol@kwangju.co.kr

공무원 조위·부조금

계급별 차등 없앤다

행안부 불합리제도 개선

공무원에게 계급별로 차등 지급되는 조위금 등이 통일된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일선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이 일환으로 계급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불합리한 인사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사장조위금과 재해부조금 등의 기준을 모든 계급에 공통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지금은 가족이 사망

하면 월 소득액의 65%, 본인 사망 시에는 195%를 조위금으로 지급하고 있어 차이 고하에 따라 금액이 다르다. 예를 들어 현재 모친상 조위금은 7급 공무원은 210만7000원, 2급은 433만4000원을 받아 계급에 따라 200만원 이상 차이 난다.

행안부는 12월까지 지급 기준을 전체 공무원 평균 월 소득액으로 바꿔 모든 공무원이 계급에 상관없이 같은 금액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제도가 개선되면 현재 공무원 평균 월 소득액인 373만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조위금은 242만4000원이 된다. 이렇게 되면 2급은 200만원 가량 조위금이 줄어드는 대신 7급은 30만원 이상 늘어난다. /연합뉴스

치매 물질 분해효소 세계 첫 개발

질병관리본부 뇌질환과 안상미 박사팀

알츠하이머 치매를 유발하는 독성물질을 분해할 수 있는 새로 운 효소를 질병관리본부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발견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생명의 과학센터 뇌질환과 안상미 박사팀이 글루타메이트 카르복시펩타이드(GCPII : Glutamate carboxypeptidase-II)라는 효소가 베타아밀로이드 펩타이드(아밀로이드)를 효과적으로 분해할 수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아밀로이드는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에서 관찰되는 노인성

신경판(senile plaque)의 주성분으로 치매 유발 물질로 알려져 있다.

이번 연구결과는 국제 실험생물학계의 SCI(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급 학술지인 '파센저널(FASEB Journal)'에 게재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연구결과를 통해 아밀로이드가 뇌에 축적되는 과정을 획기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게 됨으로써 앞으로 치매 치료제 개발을 이끌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연합뉴스



광주여성대회 개최

제18회 광주여성대회가 22일 광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대회에서는 송희성 한국여성지도자연합 광주·전남회장이 무등여성대상을 수상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이인복 춘천지원장

신임 대법관 제청



이용복 대법원장은 22일 이인복(54) 춘천지원장을 다음 달 24일 퇴임하는 김영란 대법원 후임으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우리나라에서 종종외상 환자가 적절한 응급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비율은 33%로 미국의 10~20%보다 훨씬 높은 편이다.